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통도사 자비원·대광명사 등서 다채로운 보은 행사 이어져

5월 8일 제37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경남지역 사찰 및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버이날의 뜻을 되새기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5월 11일 오후 2시 극락보전에서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고, 신도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위해 흥겨운 잔치를 마련했다. 엄숙자 경기민요연구소의 민요 공연, 해운대달맞이민속보존회 사물놀이 공연, 고전무용, 대광명사 합창단 공연, 신도 가요메들리, 주지 목종 스님의 노래선불 등으로 2시간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주지 목종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아 잠시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며 “현재 대광명사 부설 기관인 참마음노인방문요양센터의 독거노인 돌기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인 효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5월 8~9일 양일간 제6회 유호장승축제의 일환으로 장승잔치 및 어르신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 첫날 오후 1시 장승제를 시작으로 제9회 장승잔치에서는 지역 내 칠순, 팔순, 구순을 맞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벌였다. 둘째 날에는 제14회 어르신 효 큰잔치를 마련하는 등 이틀간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사)통도사 자비원(대표 정우)은 5월 8일 오전 11시부터 어버이날 기념식을 갖고, 점심공양 및 경로잔치를 벌였다. 경로잔치는 통도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 풍물패, 학춤, 각설이 타령, 인기 가수 공연, 직원 장기자랑, 어르신 레저방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오근섭 양산시장, 후원자, 봉사자 및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범산)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제1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길놀이, 경로잔치, 축하공연, 점심공양 등 신명나는 놀이마당이 펼쳐졌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는 5월 7일 오전 11시부터 제14회 사랑의 효 큰잔치를 열었다.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축하공연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 불교계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의 공양, 유호종합복지관의 칠순 팔순 구순 어르신께 큰 줄다리기를 펼치는 경로잔치 한마당 모습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부산 푸루나 김진성 회장

“청소년들 불교와 친해질 방법 찾고파”

“교장선생님께서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중에 어느 그룹이 더 좋으세요?” “둘 다는 안 되죠? 소녀시대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허허허.”

매주 월요일 전교 조례시간이면 어김없이 단상에 올라 땀방울 아래서 전교생을 잠재우던 근엄하고 무서운 교장선생님이 아니다. 생기발랄한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며 바르게 키우는 친근한 아빠 같은 이분은 바로 학산여자고등학교장이자 교육경영인블자회 ‘부루나 존자’ 김진성 회장(사진)이다.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부는 등록회원만 18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부산의 교육전문직인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비롯해 교육관리직에 종사하는 장학사와 장학관님들이 180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2개월마다 짝수 달에는 부산시내에 주요사찰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홀수 달에는 임원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지요.”



30년째 거슬러 올라간 1978년 동아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출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한 김진성 회장은 지금까지 키워낸 제자만도 2000여 명이 이른다. 30년 경력의 ‘교육베테랑’답게 넉넉한 미소에서 아버지하고 같은 자상한 리더십이 묻어나온다.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때와 많이 달라요. 대중문화를 접하는 나이가 빨라지다 보니 저마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편이죠. 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저서 2년 전 김진성 회장과 같은 고민을 안은 교육 관리자 및 전문직 불자들이 모여 ‘부산 푸루나’를 창단했다. ‘푸루나’란 설립본자라 불리는 ‘부루나 존자’에서 따온 이름으로 정년퇴임한 불자 교장들이 교단에서 쌓은 교육애와 불심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2007년 6월 1일 서울에서 창립해 현재 부산, 인천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청소년 포교의 비전과 불교교육정책 제시, 불교자

학산여자고등학교의 교훈은 ‘성실·현수·자비’로 이 여섯 글자 안에는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 참된 지혜를 연구하고 행해 마음을 밝히라’고 했던 스님이셨던 선전의 교육원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불교’ 하면 할머니 종교, 혹은 어려운 종교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불교는 자기성찰의 종교이다 보니 다른 종교에 비해 대외 활동이나 포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어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불자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죠.”

그저서 김진성 교장은 학교 내 파라마리활동등을 적극 장려하고, 교내에 부처님을 모신 법당도 늘 개방하고 있다. 물론 성서연구반도 운영하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원하는 종교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어떠한 종교든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열린 방침 덕분이다.

“불교는 일찍 만날수록 좋습니다. 불교와 절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친숙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무언가가 절실합니다. 그걸 찾으면서 제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기자

지하철서 만나는 ‘나를 찾는 지혜’

풍경소리부산경남지부 창립 10주년 전시

부처님 가르침을 작가의 글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전하는 포교매체 (사)풍경소리부산경남지부(대표)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부산지하철 및 기차역에서 대대적인 전시회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경남의 공공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문화 포교 행사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위기극복의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

출품작은 지난 10년간 풍경소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님께 명상의 시간을 드립니다’와 ‘나를 찾는 지혜’라는 주제로 발행한 포스터를 가운데 선정해 특별 전시된다.

부산지하철은 4월 20~26일 동래역(1호선)을 시작으로 27일~5월 3일 중앙동역(1호선), 4~10일 괴정역(1호선), 11~17일 못골역(2호선), 18~24일 호포역(2호선), 25~31일 수정역(2호선), 6월 1~14일 개금역(2호선), 15~28일 미남역(3호선), 29일~7월 5일 거제역(3호선), 6~19일 동백역(2호선), 20일~8월 2일 남양산역(2호선), 3~16일 양산역(2호선), 17~30일 남천역(2호선)에서 1~2주간 릴레이 전시된다.

부산·경남 기차역은 6월 15~21일 울산역, 22~28일 구포역, 29일~7월 5일 화명역, 6~12일 삼랑진역에서 각각 1주씩 마련된다.

박지원 기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 디딤돌 되기를”

혜원정사 6월 13~14일 혜원문화축제 개최

신록이 짙어가는 6월의 한여름 밤, 산사에서 신명나는 희망의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6월 13~14일 양일간 혜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나누는 기쁨, 하나 된 축제”를 슬로건으로 제12회 혜원 백일장을 비롯해 성우원생과 함께하는 피자 파티, 차 문화 체험 행사,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혜원음악회까지 예년과 비례 문화와 나눔의 양과 질 모두 풍성해졌다.

제12회 혜원 백일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혜원정사 만불전 및 예식장 강당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국 초·중·고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대상과 부산광역시장



혜원문화축제가 6월 13~14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혜원 백일장 모습.

별 다레 시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후 오후 6시부터 제8회 혜원 음악회가 특별무대에 열린다. 1부 혜원합창단 공연 및 선재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시작으로 2부에는 인기 가수 박현빈, 정수라, 그룹 캔 등이 출연해 혜원문화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주지 원허 스님은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의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 줘야하는데, 이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회향하는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번 축제 때 울려 퍼질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알았고 불경기에도 흥황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황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용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양사부수,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전거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품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 안생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위치한 보석으로 어둡고 고통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윤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복위가 있다. 고급게 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능)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